

노인과 바다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어느 여름날 강한 태풍으로 인해 우산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날이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약 30분, 자전거를 타면 10분 정도 거리. 평소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집을 나섰다. 잠시 후 강한 바람 때문에 우산을 든 손에 힘이 더 들어가서 한 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자전거는 쓰러져 버렸다.

나름 자전거를 잘 탄다고 자부했었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다니 참으로 창피했다. 물론 태풍 때문에 길 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아무도 날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서둘러 수습하기 시작했다. 우산은 바람에 뒤집혀서 몇 바퀴 구른 뒤라 부러진 살들이 앙상하게 보였고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핸들이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넘어지면 서 어디에 걸렸는지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손바닥은 까여서 피가 나고 있었다. 완전 최악이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 역대급 태풍이었고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TV 속에서 한 노인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조그만 어촌마을에 사는 어부였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은 유명한 소설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말 그대로 바닷가에 사는 노인의 인터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내용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인터뷰를 보면서 '노인과 바다'를 처음 읽고 느낀 감정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노인이 인터뷰하게 된 사연이 소설만큼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연은 며칠 전 내가 최악으로 기억하게 된 태풍과 연관이 있었다. 인터뷰 당시 노인이 사는 주변 마을의 모든 어선이 그 태풍으로 파손되어 조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노인의 어선만 부서지지 않아 혼자만 조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운이 좋아 그랬다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력이 강한 태풍 소식이 들리자 대부분 선주는 배를 항구에 피신시켰지만, 그 노인은 오히려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다고

했다. 태풍 소식이 들리면 배들은 항구로 피신하는 일반적이다. 그런데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 노인은 높은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태풍을 가로지른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만이 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도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배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고 노인의 배만 무사히 태풍을 이겨낸 것이다.

노인은 주변 항구에서 자기 어선만 유일하게 조업하고 있으니,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유쾌한 웃음을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노인의 웃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입안이 어색하게 보였다. 그것은 이빨이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강한 파도를 뚫고 배를 운전하면서 워낙 세계 이를 꼭 깨물어 여러 개의 이빨이 빠졌다는 것이다. 배를 살리고 이빨을 잃은 것이다. 같은 태풍을 경험했는데, 나는 웬지 태풍에 진 기분이라면 노인은 태풍을 이겨낸 영웅과 같았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인 어선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도전을 한 점에 있어서 소설 속에 나오는 노인과 오버랩되어 보이고 있었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尹 대통령에 '폭삭 속았어요'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K-컬처의 저력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사투리로 '수고 많으셨습다'라는 뜻이지만,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폭삭 속은 헛헛한 느낌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딱히 기억남을 만한 것이 없지만, 윤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경제 중심축을 민간과 기업으로 옮겨 잠재성장률(노동·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규모)을 현재 2%에서 4%까지 끌어올려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4~2026년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국가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 어느 하나 결실을 맺은 바 없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탄핵 정국 전후 내수와 경기는 얼어붙었다. 내수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자 수는 565만 7000명으로 2021년 이후 3년만에 줄었고 IMF 외환위기였던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2009년보다 적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를 하향 조정할지 한달 만에 건설투자 및 건설업 고용부진, 통상갈등 심화

등으로 경기나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공언하며 기존 제조업·서비스 강국을 압박하고 있어 경제계의 고민이 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사고 사망자가 589명으로 직전 연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담당자는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며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업 못한 청년 백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

모든 경제 침체의 원인을 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을 순 없다.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직을 내걸 모험을 하지 않고 경제 공약 실천에 집중했다면 국민들은 적어도 속았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을 것 같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9일 (음 2월 2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라. 48년생 성공이 지척이니 힘내라. 6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있는 법이니 서운해 마라. 72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가며 들어야 한다. 84년생 마음에 드는 투자처가 있어도 자금 주머니를 생각.



37년생 모두 자신 탓이니 남을 원망하지 마라. 49년생 건강에 좋은 차를 선물 받는다. 61년생 올라가는 대로 내려버려 두는 것이 좋다. 73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마무리. 85년생 휴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38년생 기다림은 길고 만남은 짧다. 50년생 꽃동산에서 여유 있게 노는 날. 62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74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는데. 86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자제.



39년생 장마가 무서워 호박을 못 settings가. 51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63년생 산책을 하며 주변을 돌아보라. 75년생 종일 우울한 마음을 독서로 달래 본다. 87년생 여러 사람 앞에서 새로운 친구를 조심해야.



40년생 有終之美란 말처럼 마무리를 생각해둘 것이다. 52년생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협동과 소통으로. 64년생 꿈이 현실로 나타난다. 76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심란. 88년생 하늘은 공기로 차 있으니 무너질 리 없으니.



41년생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다고 했으니. 53년생 투자는 선택이 중요하지만, 나이를 생각해야. 65년생 뒤늦게 가정불화로 관세수가 따르다. 77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89년생 시간은 혼자서 가고 마음대로 멈춘다



42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54년생 주변에 부담은 주지 마라. 66년생 방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터. 78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90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온다.



43년생 해치려고 하는 자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55년생 새벽에 돼지꿈을 꾸었으니 뜻을 이룬다. 6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79년생 정성껏 기도로 관재구실을 면해보라. 91년생 유리한 정보를 얻어서 이득을 본다.



44년생 자녀에게 목표를 세우고 힘을 기울이자. 56년생 경사가 겹치니 금상첨화. 68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무슨 일든 참여. 80년생 정성으로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 92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할 때가 아니다.



45년생 정의가 힘이 될 수도 없는 현실이다. 57년생 불평 마라 세상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열심히. 69년생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 해야 한다. 81년생 부러지더라도 굽히지는 마라. 93년생 실행하기 어렵다고 부부간에 의논도 하지 않는가.



46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니 매사 조심. 58년생 새로운 계획은 생각을 신중히. 70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경계. 82년생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신이 나니 열심히 벌도록. 94년생 태산이 되지 못해도 일단은 모아라.



47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만남을 주의. 59년생 뒤늦게 이력서 낸 곳에서 소식이 온다. 7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시작하자. 83년생 조직에서 큰 상을 받으려면 날아갈 듯. 95년생 못 믿을 것은 내 마음이지 상대의 마음은 아니다.



김상회의四季 배려와 존중의 명리학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사주로 태어난다. 같은 사주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굴의 생김새처럼 모두 다르다. 어떤 사주는 특정한 기운이 넘치고 어떤 사주는 특정한 기운이 부족하다. 운세의 흐름도 사람 따라서 다르다. 사주와 운세가 다르기에 모두 자기의 특성을 갖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사주가 알려주는 인생길의 방향과 운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도 있다. 명리학은 이런 다양한 사주를 존중하고 사주의 넘치고 부족함을 배려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모색한다.

배려와 존중이 명리학의 기본이라고 본다. 명리학은 사주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면 보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사주의 형상에 따라 운세를 좋게 만들고 기운을 돋워준다. 배려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명리학은 모든 사주의 형상을 인정한다. 어떤 사주든 타고난 특성 그대로 존중한다. 그 바탕 위에서 더 나은 앞날을 만들어 갈 수도 있도록 이끌어 준다. 현대 사회는 크고 작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립하고 충돌한다. 그 이유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서 그러할 것이다.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이해 못 할 일은 별로 없다.

그런데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은 틀렸다고 무시하지만, 명리학은 사람들과 대립하거나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바탕에 배려와 존중이 있기에 사주학에 담겨 있는 다름과 부족함과 넘침을 존중한다. 그건 사주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존중이다. 또한, 넘침과 부족함을 배려해서 나온 인생길을 찾도록 이끈다.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현대 사회에는 이런 명리의 이치가 필요하다. 존중과 배려는 시대를 뛰어넘는 인생의 지혜다. 학문을 주목해 보도록.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이드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이드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2	8	3	9	5
4		5		7
		7	6	
	5			
		2	3	9
			7	
	1	3		
2			1	8
8	9	7	6	2

	7	1	4	8	
2					
		8	4	9	
2		3			
1	3			2	4
			6		5
4		9	1		
					5
8	3	5	6		

1	2	9	9	4	6	8	8
9	8	9	1	6	4	2	2
6	2	7	8	2	1	9	9
9	9	1	8	9	2	6	4
4	9	1	6	8	2	8	9
8	6	2	4	9	9	1	8
2	1	9	2	6	4	8	8
2	8	2	9	1	9	4	6
9	4	6	8	9	8	2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3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